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5 주일]

2009년 7월 11일

<제 1 독서> 야모스 예언서 7,12-15 <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제 2 독서> 에페소서 1,3-10 < 하느님께서 세상이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6,7-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영성체송]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시작: 401 봉헌: 218 성체: 179 파견: 77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신태영 알베르토, 정나미 모니카
다음주 독서: 박민웅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조은영 베다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560

봉헌금: \$ 168

매일미사: \$ 5

캠프비: \$ 140

합계: \$ 873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월 17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7 월 24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족하면 청하고 없으면 매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악령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힘’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셈입니다. 제자들은 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 선교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다른 것은 준비 못 해도 ‘이 힘’은 지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제도’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갖추고 많은 이가 동참하면 ‘힘’이 생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속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하느님의 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들고 맙니다.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소리 없이 문을 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마음먹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맡기기’ 행위입니다. 사도들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에게 매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 <생명의 말씀>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

구요비 옴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내가 주임신부로 사목하던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불문학 교수님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조르주 베르나노스 저 / 정영란 역)를 최근에 선물로 받았다.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읽으며 심오한 영적독서를 접하는 심정이다.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불란서의 가톨릭 작가인데 인간의 내면에서 해파리처럼 입 벌리고 있는 권태와 허위, 공허와 위선 안에 질게 드리워진 악의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젊은 사제의 모습 안에는 아르스 본당의 요한 비안네 성인의 삶과 영성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작가는 자주 ‘범용(凡庸)한 사제는 추하다’라고 가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 작품 안에서는 범용한 사제에게까지도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사제는 위암의 병고를 늘 짊어지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내성적 성격으로 유약하고 서툴며 비효율적인 사목으로 자주 실수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우직하게 사랑하며 그 영혼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다. 약점투성이의 무능해 보이는 이 젊은 사제의 순수한 마음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 감수성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의 내면세계를 꿰뚫어 보는 혜안으로 번득인다.

이 마을의 유지인 백작 부인과의 우연한 만남과 긴 영적 대화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을 증오하고 거부해 온 이귀부인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평안히 있을지어다’하고 나는 부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평화를 무릎 꿇고 받았었다.... 내가 그 평화를 부인에게 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신묘한 일인가! 아아 우리들 두 빈손의 그윽한 기적이여!”(252쪽) 죽기 전의 편지에서 이 귀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 조그만 아기에 대한 절망적 추억이 저를 모든 것에서 별리하여 무서운 고독 속에 몰아넣어 두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어린 아이 하나가 이 고독에서 저를 끌어내 준 것 같이 생각됩니다.... 신부님은 정녕 어린이시니까요. 좋으신 주님께서 신부님을 그대로, 또 영원히 지켜주시기를!(244쪽)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며 요청하시는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어린이의 마음이다(마태 18,3-4):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8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부르심은 파견을 위해서이다.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야 할 때 또한 부활하신 주님(kyrios)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in persona Christi) 일할 수 있다. 여기에 제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가난, 어린이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이는 바로 자신의 무력감에서 제 기쁨의 근본 원리를 경험하게 이끌어 낸다. 어린이는 모든 것을 제 어머니에게 맡긴다. 제 온 목숨, 인생 전체가 어머니의 시선 속에 있는데, 그 시선은 바로 미소이다.’(베르나노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全無)’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全部)을 채워주시고 사도들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12-13절)”

† <알려드립니다>

- ❖ 김동영 라이문도 형제님이 오늘 미사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영성의 향기-성령>

- ❖ 초기 교회의 성령과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힘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의 활동을 성령이 지도하고 결실을 맺게 한다고 전합니다.

방인의 사도였던 바오로 사도는 성령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확신하였고 성령의 인도로 행동하고 설교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며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고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 ❖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역할

바오로 사도는 그의 서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선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 즉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 등을 결실로 맺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하느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이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바울이>



-유판식 토마스